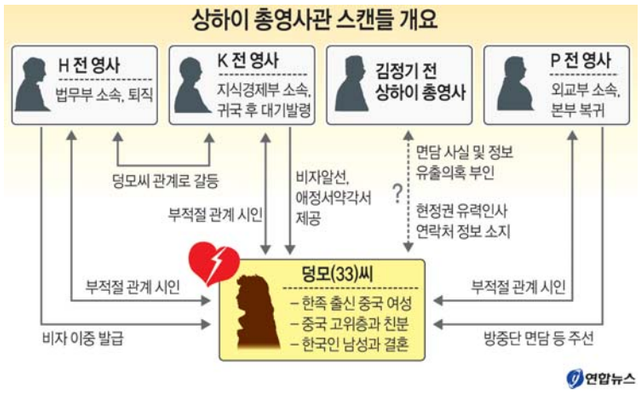
대한민국 엘리트들 '외교 대신 외도'

연루된 영사 모두 명문대·고시 출신 '사회지도층'

애정 서약·연적싸움까지…"국제적인 농락" 비난



의문의 중국 여성 덩○○(33)씨와 불륜 파문을 일으킨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은 한결같이 국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시 등을 거쳐 정부기관의 핵심요직에 오른 최고 엘리트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도덕성과 사명감을 생명으로 해야 할 자리에서 '교민 보호'라는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교민의 아내'인 주재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데다 국내 정·관계 주요 정보와 기밀이 유출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와 공직사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불륜 파문의 주인공 격인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무행정의 유망주였다. 덩씨에게 비자를 부정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H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무부 검찰사무직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 비서로 발탁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 법무부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덩씨에게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필 각서를 써준 지식경제부 소속 K(42) 전 영사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정부 부처에서도 노른자위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을 지낸 기대주로 알려졌다. 촉망받는 엘리트였던 K씨가 사정이야 어찌됐든 주재국 여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드리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덩씨와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K(43) 전 영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찰에 입문한 뒤 사시 출신이라는 이점을 업고 승승장구해 36세에 총경으로 진급, 당시 전국 최연소 총경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K 전 영사는 이번 사건과는 다른 일 때문에 옷을 벗고 국내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덩씨와 얼굴을 맞대거나 껴안다시피 한 사진을 여러 장 찍은 것으로 밝혀진 외교통상부 소속 P(48) 전 영사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발령받아 부러워할 만한 경력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덩씨의 USB 메모리에 담긴 정부·여당 고위층 연락처의 원(原) 소유자인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20여년 전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어교재 '거로 Vocabulary Workshop'의 저자로,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0년 귀국한 김 전 총영사는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거쳐 총장에 올랐고, 기업 CEO 등을 거치며 화려한 경력을 쌓은 뒤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서울 노원병)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으나,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으로 활약한 뒤 2008년 6월 상하이 총영사로 부임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에 대해 주재국 일선에서 뛰는 영사들이 현지 고위층과의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지만, 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외교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훨씬 더 강하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단 파견키로

靑 총리실에 철저조사 지시

정부는 9일 주(駐) 상하이(上海) 총영사관 일부 직원들의 추문 및 기밀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조만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상하이 현지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해당 부처로부터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징계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조사할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만 갖고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유출과 관련자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상하이 현지에서 조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곧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통상부, 정보유출 관련 기관 등이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기밀유출 3개월전 알고도 방치"

국무총리실과 법무부가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유출 사건을 이미 지난해 12월 인지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늑장대응과 은폐·축소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주인공격인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와 지식경제부 K(42) 전 영사는 덩(33)씨와의 문제가 표면화된 작년 11월 초 임기를 다하지 못한 채 국내로 소환됐지만 3개월여 동안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 전 영사는 작년 11월10일 귀국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출국심사국장으로 발령났다가 두 달이 지난 올해 1월 중순께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월 초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총리실은 12월 중순께 외부 제보로 덩씨의 불륜 파문은 물론 정부·여당 인사들의 휴대전화번호와 '대외보안'이라고 찍힌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비자관련 서류 등 정보유출 정황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법무부도 12월 말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의 중국 소재지를 알아내 덩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치정 문제로만 국한해 처리했고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유출 정황은 알고 있었지만 감찰 권한 밖의 일이었고 H 전 영사가 직접 유출한 것으로 파악한 일부 정보는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상하이 스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담당자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비아 1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정부는 9일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비아 정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1개월간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했다.

리비아 여행경보가 격상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22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오는 29일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덩씨 의도적 접근, 비자 이권 때문?

'상하이스캔들'의 주인공 덩모(33)씨는 비자 관련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영사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상하이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덩씨는 불륜스캔들과 비자부정발급 의혹 등으로 사직한 H 전 영사와 작년 5월께 상하이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H 전 영사는 당시 비자신청 대리기관 지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덩씨의 여러 행각들을 고려할 때 계획적이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덩씨는 또 유창한 한국말과 빼어난 외모, 배후의 유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상하이 한인사회에서 이권에 개입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덩씨는 H 전 영사와 알게된 후 바로 깊은 남녀 관계를 만들었으며 총영사관에 비자신청 대리기관 지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H 전 영사에 접근하기 전 이미 귀국한 K, P 등 다른 영사들과 접촉, 중국 관련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며 비자신청 대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리기관 지정이 불발된 후에는 대리기관 지정에 반대했던 영사를 찾아내 술집 출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세기의 미녀 스파이들, 덩씨와 닮았나

마타하리 가와시마 김수임 안나 채프먼 덩씨

중국 상하이에서 의문의 30대 중국 여성이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밀자료를 빼낸 '상하이 스캔들'이 외교가를 뒤흔들고 있다.

아직까지 이 여성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미인계를 활용한 여간첩 사건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의 '마타하리'는 미녀 스파이의 대명사다. 그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프랑스 파리 물랭루주의 댄서로 사교계에서 명성을 날리면서 프랑스 군부와 정계의 고위층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독일에 넘기다 1917년 프랑스 정부에 체포돼 반역죄로 총살당했다. 하지만 그가 프랑스와 독일을 오간 이중 스파이라는 설도 있다.

일본에는 '가와시마 요시코'가 있다. 청나라 왕족 출신으로 여섯 살 때인 1912년 일본에 양녀로 보내진 가와시마는 일본 간첩으로 활동하며 일본 괴뢰정권인 만주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1948년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반역죄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시마와 함께 일본의 양대 여성 스파이로 꼽히는 '미니미죠 구모코'도 장제스 대만 전 총통에 대한 암살을 두번이나 시도하는 등 중국에서 여러 작전에 참가했다.

한국에선 일제시대 이화여전을 졸업한 미모의 인텔리 여성 김수임이 대표적이다. 그는 해방 후 당시 미8군사령부 헌병대장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하면서 북한 초대 외교부장을 지냈던 애인 이강국에게 미군 정보를 넘겼다.

그는 1950년 체포돼 총살됐으나 2008년 이강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다는 기록이 발견돼 김수임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미모의 러시아 스파이 안나 채프먼이 화제였다. 스물 여덟살의 이혼녀인 채프먼은 사교계의 거물로 떠오르며 미국 정부 관리들과 사업가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러시아에 넘기다 체포됐다.

한국에선 지난 2008년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 원정화가 체포돼 충격을 줬다. 원정화는 위장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뒤 2005-2006년 군 장교들과 교제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냈다. /연합뉴스